

날씨를 아는 자가 승리한다 ②

글 장영주

우리 단체 구성원들은 날씨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저는 우리나라 뚫달리기꾼들이 날씨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여러 정황 증거로 미루어 대략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정황 증거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단체가 창립된 이래 아직 한 번도 구성원들에게 날씨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었다는 것.

둘째, 단체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날씨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간행물을 펴낸 적이 없다는 점.

셋째, 단체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날씨 공부를 하려고 해도 그동안 시중 서점에는 변변한 책이 없었다는 사실.

이와 같은 세 가지 정황 증거로 미루어 볼 때, 우리 단체 구성원들에게는 그동안 날씨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사회적 여건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날씨를 공부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수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요트경기는 날씨의 활용 싸움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국가대표팀에 기상 전문가를 배치한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의 요트 선수들이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우리 선수들만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면 국제경기의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 일이 아닌가요? 국내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날씨의 예측 수준이 비슷한 선수들끼리 도토리 키 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상을 외면한 채 올림픽에서 메달을 기대한다는 것은 한편의 코미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뚫달리기꾼들이 날씨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찌 날씨에 대한 관심마저 없었겠습니까? 바다에 나가기에 앞서 그날의 일기예보를 챙겨 보고 나름대로 관천망기(觀天望氣)의 지혜를 발휘하여 날씨를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기예보는 광역대의 기상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균치를 예보하는

것이므로 내가 지금 있는 장소의 국지적 기상 현상과는 많은 차이를 드러내기 일쑤입니다. 지난 장마 때, 청주에는 시간당 92mm라는 전례 없는 폭우가 쏟아졌는데도 인근 지역에는 5mm의 비만 뿌렸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기상 이변이 심화되면서 이제 이런 국지적 심화 현상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기 예보는 아직 국지적 기상까지 정확하게 예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0년 넘게 홀로 세계 25개국을 돌며 크루징 생활을 해 왔던 하워드씨는 난바다에서도 늘 기상 팩스와 웹사이트를 통해 기상 정보를 받아 보고 또 인근 국가에서 방송하는 기상 전문 채널의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믿을 수 있는 기상통보관은 오직 당신뿐이다.” 고 했습니다.

그의 지론은, 일기예보란 이미 일어난 각종 기상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예측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미 지나간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지론은 자기가 향해 중인 해역의 날씨와 일기예보를 건취 본 결과일 것입니다. 따라서 뚝달리기꾼에게 날씨 공부는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경기에서 상위에 오르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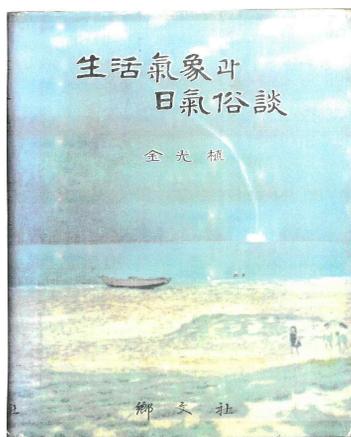
날씨 공부는 스스로 하자

단체에서 날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면 구성원들에게는 날씨 공부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일인데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날씨 교육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요트도서편찬모임>과 저는 단체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들을 걷어 내기 위해 협회 누리집을 통하여 수많은 제안을 해 왔지만 단 한 가지도 개선을 시도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개선할 의지가 없었다기보다 개선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체에 대해 또다시 무엇인가를 제안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잠꼬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체에 대한 제안을 접어 두고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날씨를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공부에 필요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우선 저의 경험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일 성싶습니다.

누구나 요트에 입문하면 날씨에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저는 1972년부터 날씨에 관한 책을 찾았으나 국내에서 발간된 책이 없었습니다. 1979년에야 <생활기상과 일기속담>이 발간되었기에 이를 샀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그 뒤로 일어판 세 가지와 영어판 한 가지의 책을 차례로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말 책 두 권을 더 사게 되어 저는 모두 일곱 권의 날씨에 관한 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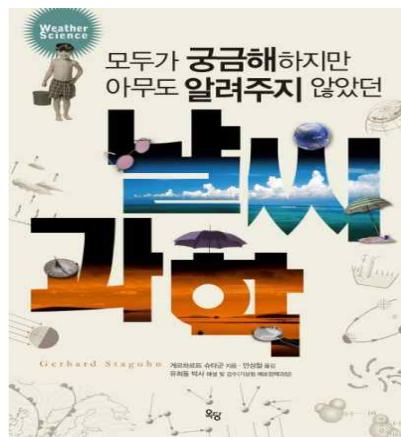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날씨에 대한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손에 넣을 때마다 돈을 주고 산 것이니 한번 훑어본 것뿐이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선수도 지도자도 아니고 요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관심뿐이거든요. 우리말로 발간된 세 가지 책 가운데 <생활기상과 일기속담>은 워낙 오래 된 책이라 절판되었을 것이므로 접어 두고 <구름 읽는 책>은 재미있고 유익한 책인데 지난날 누리집을 통해 소개한 적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날씨 과학>을 날씨 공부의 첫째 단계 교재로 소개합니다.



<생활기상과 일기속담>
김광식 지음
향문사 발행
1979년 3월 25일
255쪽 2,500원



<구름 읽는 책>
개빈 프레터피니 지음
김성훈 옮김
2014년 5월 1일
410쪽 16,000원



<날씨 과학>
게르하르트 슈타군 지음
안성철 옮김
유희동 박사 해설 및 감수
2012년 7월 10일
287쪽 16,000원